

도시공원 해법 찾는 토론회

전북녹색연합 창립 10주년 맞아

전북지역 스님들이 참여하는 환경단체인 전북녹색연합(상임대표 회일)이 창립10주년을 맞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7월 12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위기의 도시공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상임대표 회일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용봉사 법전 스님, 성덕사 지홍 스님, 염불사 행담 스님, 정안사 정안 스님, 구룡사 대공스님, 천지사 현진 스님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지게 될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서는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이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현황과 대응방안', 정성국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이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공원구역 지정 추진' 등을 발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학인스님들, 불교복지 현장학습

봉녕사승가대학, 종로노인복지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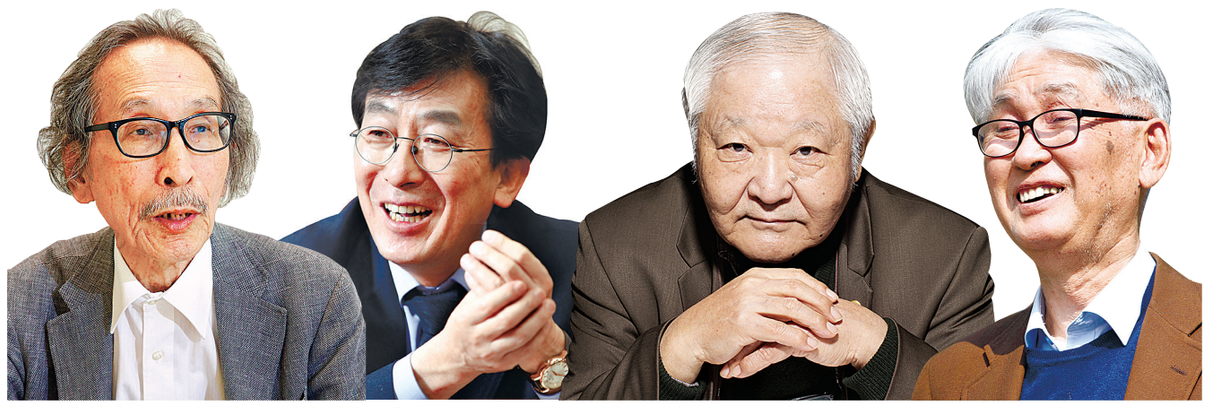
학인스님들이 복지관을 방문해 불교복지에 대한 현장교육을 받았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7월 15일 복지관서 봉녕사승가대학 학인스님 25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부터 '불교사회복지' 를 필수과목으로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학인스님들은 복지관과 지역사회 현황, 복지관 역할과 기능, 사업 전반에 대한 이론과 사례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 받았다. 이후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을 책임지는 생활관리사들과 조를 이뤄 10개 가정에 방문, 후원물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담소를 나눴다.

교육에 참여한 영호 스님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말벗이 됨으로써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어르신들이 임종을 기다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 보탬이 되도록 복지관이 원조한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제23회 만해대상 수상자들 모습. 왼쪽부터 와다 하루키, 정기현, 임영웅, 김우창 순이다.

"한일병탄 무효" 앞장서 알린 와다 하루키 교수 만해대상

만해축전추진위원회, 제 23회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강하게 비판해 온 일본 대표 진보 지식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회 종호)는 7월 15일 '제23회 만해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 · 발표했다. 올해 평화대상은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수상한다. 실천대상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받게 됐다. 문예대상은 연극 연출가 임영웅 씨와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문은 단연 평화대상 수상자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다. 그는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0년 5월 병합조약 원천 무효를 골자로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주도한 일본대표 진보 지식인이다.

그해 5월 10일 일본 도쿄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 '한국병합' 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며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며 '한국병합' 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 조약' 도 불의부당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은 일제 식민지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일 양국 조야(朝野)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214명으로 시작된 공동성명 참여자는 3개월 만에 110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한일 지식인성명의 영향력은 컸다.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일본 총리는 2010년 8월10일 100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조약 발효로 시작된 식민지배가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적거리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지식인 성명에도 앞장섰다. 2015년 7월 한일 양국을 넘어 세계 지식인 524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위안부 문제 인식과 과거사 왜곡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

평화대상 하루키 교수 비롯해
실천대상, 중앙의료원 응급센터
임영웅 · 김우창 교수 문예대상
8월 12일 시상식… 각 1억 원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한일지식인 공동 성명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면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에 앞장선 와다 교수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그간 주목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설연휴 윤한덕 前센터장(1968~2019)의 갑작스런 순직으로 그 존재 가치가 조명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아무리 작은 병원의 응급실에 가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윤 前센터장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쉼 없이 애쓰고 있다.

문예대상 공동수상자인 연극 연출가 임영웅 씨는 연극에 대한 사랑과 뚝심으로 반세기 동안 무대를 지키며 성공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냈다. 그는 원작을 한 글자도 훼손하지 않는 정통파 연출가로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다. 연출가협회장과 연극협회 이사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동랑연극상, 이해랑연극상, 파라다이스상 등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문예대상 공동 수상자인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며 1977년 첫 평론집 〈궁핍한 시대의 시인〉을 출간한 뒤 인문학 전반을 아우른 비평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섬세한 독해와 품격 높은 문체가 돋보이는 평론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한국 비평 문학을 이끌어왔다. 특히 만해 한용운의 삶과 문학을 깊이 있고 중후하게 다룬 평론으로 주목을 받았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평화 · 문학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만델라 前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前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前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안느 스퇴거 前소록도 간호사, 고은 시인, 조정래 소설가,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이 있다.

시상식은 올해 만해축전 기간인 8월 12일 오후 2시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서 열린다.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만해 한용운 스님의 뜻을 기리는 올해 만해축전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자유 · 평화' 를 주제로 만해마을 및 인제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11일 만해대상 21주년 기념 만해축전 전야제 및 홍보공연 등을 시작으로 축제기간 동안 제21회 전국고교생 백일장, 제17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제8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격려

순창사암연합회, 느랭이산 347고지 방문



순창사암연합회(회장 동산)는 7월 9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순창군 쌍치면 느랭이산 347고지를 방문, 조사에 한창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암연합회장 동산 스님을 비롯해 황숙주 순창군수, 순창지역 불자들은 장병들을 위해 준비한 각종 먹거리를 나눠주며 무더위 속에서도 발굴조사에 매진하는 장병들에게 힘을 보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외신기자도 감탄한 템플스테이

불교문화사업단, 해인사서 1박2일 팸투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7월 12~13일 합천 해인사에서 주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팸투어를 실시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언론사에서 참석한 참가자들은 예불과 108배, 단주 만들기, 명상 등을 체험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윤호섭 기자

전주 연꽃문화축제 성료

우리문화연구원, 덕진공원 3만여 시민 참가



(사)우리문화연구원(대표 성우, 금산사 주지)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전북사암승가회의 후원으로 7월 13일과 14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연꽃향기에 취한 문화향연' 이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는 3만여 명의 시민이 찾아 수묵화 그리기, 다도, 합장주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각종 공연을 즐기며 풍요로운 주말을 보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한국불교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사장 상 진
이 사 해 경
지 홍
심 곡
벽 산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 화 031)836-2439,1080
팩 스 031)836-1081 홈페이지 www.bluelotus-temple.co.kr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안정사)

주 지 해 경
총무/교무 상 진
재 무 심 곡
서무/원주 벽 산
사무처장 효 능
복지문화팀장 철 오
대 중 도 암, 지 홍
일 구, 보 휴
지 봉
일 효, 일 명
지 휴, 혜 명
건설본부장 김호영

종무소 직원
업무국장 한은옥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경리계장 공성희(여진)